

마술요법이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박경미, 강문희, 오경옥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the Magic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Rural Low-Income Children

Kyong-Mi Park, Moon-hee Gang, Kyong-ok Oh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10-12세 농촌 빈곤아동 45명 (실험군=24명, 대조군=21명)이다. 실험군은 주 1회 40분씩 총 8회기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χ^2 -test, t-test와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8주 마술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F=6.68, p=.013)과 자존감(F=7.61, p=.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술프로그램은 빈곤 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추후 아동의 연령과 지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기전을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우울, 자존감, 농촌, 빈곤 아동, 마술프로그램

Abstract The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magic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rural low-income children. A quasi-experimental study employ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pre-post design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children aged 9 to 12 years old from community child center in K province (Experimental group=24, Control group=21).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8 sessions for 8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independent t-test, repeated measures ANCOVA with SPSS 21.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F=6.68, p=.013) and self-esteem (F=7.61, p=.009) of participant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completion of 8-session magic progra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ic program can be used to improv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low-income children.

Key Words : Depression, Self-concept, Child, Magic, Poverty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성장발달을

이루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7년 IMF 이후 경제 약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28 October 2016, Revised 30 December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Moon-hee Gang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mhgang@c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혼롤 증가, 가족해체, 한 부모 가족의 증가로 인한 아동의 방임 및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

특히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빈곤아동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빈곤아동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1].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5.6~6.7%로 약 651천명으로 추산되며, 대도시 11.72명, 중소도시 7.33명 및 농어촌 10.25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1].

빈곤아동은 대부분 결손 및 해체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 아동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 주로 비행, 신체증상, 짜증, 분노 등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과 진단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3]. 이러한 우울은 아동의 대인관계, 학업,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1]. 만성적인 아동의 우울은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물질사용장애 등 다양한 아동기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4]. 따라서 아동의 우울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이지 아닌 정신병리적 문제이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선천적인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나 친구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5]. 자신에 대한 의미있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아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적절한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부족하여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2].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 형성과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증가시키게 된다[6].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경향이 있는 아동은 청소년기로 이행되면서 심각한 비행과 약물남용 등의 행동장애나 우울증에 이환될 위험성이 높다[2]. 따라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빈곤아동의 정신건강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빈곤아동의 우울감소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중재가 수행되어왔다[7].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농촌처럼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더욱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촌 빈곤아동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8,9].

최근 미술은 국내의 경우 시장규모가 300억원에 달하고, 미술인구 200여만명, 국내 미술동호회 천여 개, 최대 커뮤니티 회원의 수는 대략 14만명에 이르고 있다[10]. 이를 통해 볼 때 미술은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을 벗어나 접근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은 1981년부터 치료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대상자들의 재활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11]. 현재 미술은 재활 이외에도 교육이나 정신사회적 치료효과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미술가와 청중간의 상호작용속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환상을 실현시킴으로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줄 수 있을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다[10].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8-10회기의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불안감소 [12], 병원생활 적응력 향상 [11], 자기효능감과 자기표현력 향상[13], 자아존중감 향상[14,15]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미술을 직접 수행할 경우 사회성, 유머, 성취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미술은 아동의 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 미술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술프로그램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빈곤률이 높으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0-12세의 농촌 빈곤아동이다. 아동의 인지수준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나이와 학년을 제한하였으며, 빈곤아동의 선정기준은 2011년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1,439,413원/월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1]. 그 외에도 정신질환의 기왕력,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총 3회기 이상 프로그램에 결석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COVA 분석의 경우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62 [14]으로 산출하였을 때, 각 그룹에 필요한 표본 수는 23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중도탈락율(20%)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27명씩을 모집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3회 이상 결석하거나 학원이나 가정사 등으로 중도에 탈락한 아동이 실험군 3명, 대조군 6명이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한 대상자는 실험군 24명과 대조군 21명이었다.

모든 연구수행절차는 K간호대학의 IRB(제 2012-49호)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순서에 따라 4개의 센터를 실험군(2개)과 대조군(2개)에 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절차, 자발적 참여 및 철회 가능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연구참여 안내문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아동과 부모가 모두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40분씩 총 8회기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과 원하는 경우 상담을 제공하였다. 모든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제공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 2인이 직접 인터뷰하여 수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아동의 우울은 Kovacs [16]가 개발하고 Cho와 Lee [17]가 번안한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3점 척도(0-2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8]가 개발하고 Jeon [19]이 번안한 SES (Self Esteem Scale)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1-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3) 마술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마술프로그램은 선행연구[11,15]와 집단치료의 원리에 근거하여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클로즈업 마술을 사용하였으며, 아동들이 쉽게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마술은 프로마술사 1인의 자문을 얻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종류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정된 마술을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마술을 직접 배워서 수행함으로써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표현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신간호학교수 2인과 정신전문간호사 2인으로부터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각 회기는 10-12세 아동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관계형성과 흥미 유발을 위한 준비기 (10분), 직접 마술을 배우고 수행하는 활동기 (20분), 매 회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

는 피드백기(10분)로 구조화하여 운영하였다. 실험군은 주 1회 총 8주 동안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미술을 훈련받고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으며, 10년 이상의 정신과 경력을 가진 정신보건간호사 1인이 진행하였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미술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와 같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왜도, 첨도 및 Kolmogorov-Smirnov test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동질성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고, 표본수가 적어서 미술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 두 집단 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일반적 특성과 사전 값을 통제 후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Magic Program

Session	Steps(time)	Contents
1	Warm up (10)	Introduction of the program
	Activity (20)	Learning the number magic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2-3	Warm up (10)	Review the number magic
	Activity (20)	Learning the palm magic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4	Warm up (10)	Review the palm magic
	Activity (20)	Learning the necklace magic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5	Warm up (10)	Review the necklace magic
	Activity (20)	Learning the card magic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6	Warm up (10)	Review the card magic
	Activity (20)	Learning the paper magic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7	Warm up (10)	Review the paper magic
	Activity (20)	Learning the UFO magic card
	Feedback (1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8	Warm up (10)	Magic performance
	Activity (20)	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
	Feedback (10)	Celebration and awards

3.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11.29(0.75)년, 대조군 10.95(0.49)년이었으며, 두 그룹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실험군은 6학년이 45.8%, 대조군은 5학년이 76.2% 였으며, 두 그룹 모두 8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상자의 50% 이상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60% 이상에서 교우관계 및 자아상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일반적 특성은 두 그룹 간에 동질하였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5)

Variables		Exp. group	Cont. group	χ^2/t	p
		(n=24)	(n=21)		
Age (year)	M±SD	11.29(0.75)	10.95(0.49)	1.75	.086
Gender	Male	7(29.2)	4(19.0)	0.62	.503
	Female	17(70.8)	17(81.0)		
Living with parent	Yes	20(83.3)	18(85.7)	0.48	1.00*
	No	4(16.7)	3(14.3)		
Perceived friendship	Good	17(70.8)	13(61.9)	0.41	.814
	Moderate	6(25.0)	7(33.3)		
	Bad	1(4.2)	1(4.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6(66.7)	15(71.4)	0.25	.879
	Moderate	6(25.0)	5(23.8)		
	Bad	2(8.3)	1(4.8)		
Perceived self-image	Good	17(70.8)	13(61.9)	0.40	.546
	Moderate	7(29.2)	8(38.1)		
Depression		10.41±6.28	12.52±8.40	-0.96	.342
Self-esteem		40.20±6.50	33.00±5.92	3.86	<.001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대상자의 실험 전 우울점수는 실험군 10.41(6.28), 대조군 12.52(8.40)점으로 정상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 점수는 실험군 40.20(6.50)점, 대조군 33.00(5.92)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다. 동질성 검정결과, 두 그룹 간에 우울은 동질하였으나(t=-0.96, p=.342),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6, p<.001) <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n Pretest (n=45)

Variables	Exp. group	Cont. group	t	p
	(n=24)	(n=21)		
Depression	10.41±6.28	12.52±8.40	-0.96	.342
Self-esteem	40.20±6.50	33.00±5.92	3.86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마술프로그램의 효과

마술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NCOVA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실험군은 8주간 마술프로그램 참여 후에 우울점수가 실험 전 10.41점에서 실험 후 8.08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12.52점에서 15.85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68, p=.013). 또한,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은 실험 전 40.20점에서 실험 후 43.29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도 33.00점에서 33.85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61, p=.009).

<Table 4> Difference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between two groups (N=45)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F	p*
		M±SD	M±SD		
Depression	Exp.(n=24)	10.41±6.28	8.08±8.32	6.68	.013
	Cont.(n=21)	12.52±8.40	15.85±9.53		
Self-esteem	Exp.(n=24)	40.20±6.50	43.29±5.84	7.61	.009
	Cont.(n=21)	33.00±5.92	33.85±6.68		

*ANCOVA conducted with covariates of pre test valu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마술프로그램을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평가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은 8회기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에서 차이는 있으나 마술프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Bdimi [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마술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ovacs [16]는 우울은 부정적인 기분 뿐만 아니라 쾌감상실, 대인관계 문제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수준과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마술의 종류를 선별하고, 마술의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아동의 흥미와 즐거움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실험군 아동은 8회기의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룹 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마술을 배우고 친구들과 앞에서 시연해 보면서 흥미와 성취감, 즐거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마술의 흥미요소와 그룹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성취감 및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증가 등이 대상자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마술프로그램에 참여 후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기 마술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한 Lee [14]와 Levin [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기평가로 구성된다[16].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8회기 동안 마술을 배우고 시연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원들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타인의 평가와 성취감이 증가하여 긍정적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후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우울 감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울관련 변인은 다변인이므로 추후 본 마술프로그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기전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마술의 종류에 따라 아동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숫자카드 마술은 아동들의 호기심과 집중도가 가장 높았고 진행자나 친구가 자신이 생각했던 숫자를 맞추자 쉽게 공감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마술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21]. 또한 UFO 마술은 그룹 구성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마술을 시연하는 활동으로 아동의 언어 및 발표력이 향상되었고 그룹 구성원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마술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추후 다양한 마술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일 농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적은 수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

로 본 연구결과를 빈곤아동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우울관련 요인이 다변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관련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마술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우울 0.86, 자아존중감 1.50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FERENCES

- [1] M. S. Kim, J. A. Jeon, T. J. Ha, H. J. Kim, M. A. Oh, E. H. Jung, et al.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in Korea, Seoul Korea",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2] H. S. Jang, K. H. Kim,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role of cumulative risk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7, pp. 185-216, 2014.
- [3] M. S. Jeon, H. O.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2, No. 3, pp. 272-280, 2011.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 [5] A. Pinto, M. Veríssimo, A. Gatinho, A. J. Santos, B. E. Vaughn,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attachments, peer acceptance, and self-esteem for preschool childre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 17, No. 6, pp. 586-598, 2015.
- [6] Y. L. Wu, J. Chen, L. S. Yang, X. X. Ding, H. Y. Yang, Y. Sun, "Change and associated factors of self-esteem among children in rural China: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Health & Medicine*, Vol. 20, No. 8, pp. 879-888, 2015. DOI: 10.1080/13548506.2014.983136.
- [7] M. M. Barry, A. M. Clarke, R. Jenkins, V. Patel,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mental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for young people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BMC Public Health*, Vol. 13, 2013. DOI:10.1186/1471-2458-13-835.
- [8] Mi-Jung Yeon, Keon-Yeop Kim, Moo-Sik Lee, Jee-Young Hong, Seok-Hwan Bae, Hye-Jeong Hwang, "A comparison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41-47, 2010.
- [9] N. S. Kim, "The exploratory study on community link of community childcare cent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2, pp. 803-810, 2013.
- [10] Y. J. Ryu, "The change of magic and everyda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Busan, 2011.
- [11] R. Hart, M. Walton, "Magic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to promote coping in hospitalized pediatric patients", *Pediatric Nursing*, Vol. 36, No. 1, pp. 11-18, 2010.
- [12] L. Vagnoli, S. Caprilli, A. Robiglio, A. Messeri, "Clown doctors as a treatment for preoperative anxiety in children: a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Pediatrics*, Vol. 116, e563-e567, 2005.
- [13] G. H. Choi, "The effects of magic program on elementary students for improving self efficacy and the ability of self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011.
- [14] G. S. Lee, "The effects of the magic lessons on one's self-esteem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009.
- [15] D. Levin, "Magic arts counseling: the tricks of illusion as intervention", *Journal of Georgia School Counselors Association*, Vol. 13, pp. 14-23, 2006.
- [16] M. Kovac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Psychopharmacology Bullutine*, Vol. 21, No. 4, pp.

- 995-998, 1985.
- [17] S. C. Cho, Y. S. Lee,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29, pp. 943-955, 1990.
- [1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9]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No. 1, pp. 107-129, 1974.
- [20] L. A. Bdini, "Magic as therapeutic intervention with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and physical limitations", Annual in Therapeutic Recreation, Vol. 16, pp. 159-70, 2008.
- [21] I. Kronzon, "The department of card tricks and close magic",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 133, No. 12, 1005, 2000.

박 경 미(Park, Kyong mi)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간호학과 박사과정,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suhein20@hanmail.net

강 문 희(Gang, Moon hee,)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mhgang@cnu.ac.kr

오 경 옥(Oh,Kyong ok)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박사
- 1978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정신간호
- E-Mail : ohkok@cnu.ac.kr